

생명 길을 걷는 방법

잠언 2:16-22, 베드로전서 5:7-8

최정웅 목사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날마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계속되고 있다. 대책을 잘못 세운 인재(人災)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대책을 세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도 문화도 계속 발전하는데, 지식도 끝 모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많아진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서 사람을 이유 없이 죽이는 경우도 있다. 연예인으로 성공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모두 이해를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이며 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성경만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지구상 어떤 책, 어떤 사람도 밝히지 못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붙잡게 되었는데, 더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한다. 이 악한 세력을 알고 꺾어야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먼저는 악한 자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전략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알게 되기를 축복한다. 잠언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 길로 가는 방법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 악한 세력을 따라가다가 사망 길을 가는 세상을 살리도록 생명 길을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번 한 주간, 잠언 2장을 계속 묵상하고 메시지를 포럼하면서, 원수의 전략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숙지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1. 악한 자의 전략

악한 자의 전략이 무엇인가? 악한 자, 다른 자가 아니다.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현장을 속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1) 첫 번째로, 오늘 잠언 2:12에 보니까 악한 자의 길이 있다고 한다.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이다. 악한 자는 근본적으로 마귀 자신을 가리키는데, 자기가 가던 그 길로 그대로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길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다. 배신하고 배반하는 길이다. 원래 사탄이라는 말이 반역자, 대적자라는 뜻이다. 감히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가 바로 사탄인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했던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라고 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다. 자기가 갔던 길로 가게 한 것이다. 이 마귀는 12절에, 꾀역을 말하는 자라고 했다. 영어 성경에 꾀역이라는 말을 'perverse'라고 했다. 비뚤어진 것이라는 말이다. 창세기 2:17에는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는데, 뱀이 이것을 비뚤어지게 말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바로 꾀역인 것이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게 바로 꾀역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13절에, 정직한 길을 떠난다고 했다. 생명의 길을 떠나 버린다. 진리의 길을 떠나 버린다. 요한복음 8:44에, 거짓말하는 자 마귀의 자식이 되어 버렸으니 정직할 수가 없다. 거짓의 자식, 악령의 자녀가 되어 버리니까 진실, 정직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15절에, 구부러진 길로 간다. 가는 곳마다 불신자 상태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한 것이다. 사탄이 그렇게 배후 조종을 계속 하는 것이다.

(2) 그의 체제를 보면, 사탄이 쓰는 중요한 전략이 16절에 나온다. 음란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육신적인 음란도 당연히 큰 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적인 음란이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음란한 일이다. 성경 열왕기를 보면, 북 이스라엘의 왕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했다. 하나님같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었다.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다. 한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따르는 자가 없었다.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성공할 수가 없다. 북조 왕 중에서는 한 사람도 칭찬을 받은 자가 없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영적 음란에 빠진 것이다. 16절에 말씀했다. '이방 계집은 말로 호련다'고 했다. 속인다는 말이다. 여러 가지 달콤한 말을 해서, 17절에,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어버리게 만든다. 이것이 원수의 전략이다.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있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동남아를 보면, 한 도시가 전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참담한 지경이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있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우리 후대가 속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싸워야 한다.

(3) 이렇게 되니까 어디로 빠지게 되는가? 18, 19절에 보면,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도 못하느니라." 사망, 지옥 배경에 빠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단의 전략과 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복음을 가지고 원수를 제압하고, 그 전략에 빠지지 말고, 그것과 싸우라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그 원수와의 싸움이다. 믿음생활이 그것이다.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도록 후대를 지켜라. 자신을 지키고 후대를 지켜라. 이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참된 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로마서 12:21에 뭐라고 하는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바로 승리하는 길이다. 분명히 여러분이 그 존재를 알았지 않은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지 말자. 다 당한 다음에 '아, 창세기 3장이었네. 창세기 6장이었네.' 이러면 지는 것이다. 현장 갔을 때 바로 봐야 한다. 원수의 전략을 잘 보게 되기를 바란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생명 길을 걷는 방법 첫 번째, 원수의 전략을 아는 것이다. 한 주간 계속 마음에 숙지하라.

2. 악한 자의 전략을 이기는 길

두 번째는, 잠언 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의 전략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분명히 이기는 전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 사탄을 어떻게 이기느냐 한다. 못 이긴다고 한다. 말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넉넉히 이긴다고 했다. 승리의 방법이 있다.

(1)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앞에서 살펴봤는데, 그 악한 자의 전략을 이기려면 반대로 가면 된다. '회개(메타노이아 μετανοια)'라는 말은, 마귀의 자녀로 가던 방향을 짝 바꿔서 하나님 자녀로 가라는 것이다. 리턴하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방향 바꾼 것이 맞는가? 원수 따라가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 그게 성도의 길이다. 우리가 악한 자의 전략을 이기려면 반대로 가야 하는데, 마귀가 악한 길을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의의 길로 가야 한다. 마귀는 우리가 어두운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길로 가야 한다. 마귀는 우리를 음란의 길로 가도록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의 길로 가야 한다. 이것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를 바란다.

① 의의 길은 무엇인가? 로마서 1:17은 분명히 말씀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은 매순간의 결단이라고 했다. 마귀 따라가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빛을 향해 가는 것이다. 복음을 붙잡는 믿음의 길이 바로 의의 길이다. 믿음으로 복음을 붙잡을 때 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딱 붙잡으면 원수는 떠나간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승리한다.

② 사단이 어둠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빛의 길로 가도록 답을 주셨다. 요한복음 8:12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의를 행하고 진실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라 가면 확신이 온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자신이 없다. 맨날 의심하고 넘어진다. 그래서 순종은 계산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행할 팀을 만들라는 것이다. 말씀을 포럼하고 행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확신이 더욱 생기게 된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

③ 음란의 길 대신 오직의 길을 가야 한다. 사도행전 4:12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여호수아 24:15에, "너희가 오늘날 선택하라.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란다. 어머니들은 절대 복음 안 들으려 하는 자녀들에게 말해 줘라. "내 소원은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다." 계속 말하면, 돌아가시고 난 뒤에라도 성취된다.

미국에 세 형제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첫째는 아버지 뒤를 이어 사업가가 되고, 둘째는 교수가 되고 셋째는 의사가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데, 큰형이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소과 하나님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다. 그

의자는 아버지가 기도하던 장소였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 아버지의 의자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셋째야들 의사가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목사가 되었다.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확실한 믿음을 후대에게 전해 줘라. 이 믿음을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한다. 이 믿음을 찬양대는 노래해야 한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한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2)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월 첫째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한다. 근본 지혜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 지혜가 무엇인가? 잠언 2:5-6에, 여호와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고 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섬김이 축복의 근원이다. 잠언 2:7에 말씀한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잠언 2:9에,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근본 지혜인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정직한 자, 선한 자의 길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밀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한다. 잠언 2:10에,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영혼,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참된 지식, 지혜로 말미암아 영혼과 마음이 살아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어릴 때 성경을 최정원 목사님께 배웠다. 학생 때는 책을 많이 봤는데, 한국 문학, 세계문학을 많이 읽고, 위인전을 많이 읽었다. 시골 섬에서 사는 어린 나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절벽에 막힌 것 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을 보니까 희망이 생긴다. 이광수 씨가 쓴 글 중에 '사랑'이라는 글이 있었다.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서로가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모른다. 플라토닉한 사랑을 하는데, 아, 사랑이 이렇게 고매한 것이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최정원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성경을 2천 번쯤 읽었다고 한다. 성경이 이렇게 깊이 있구나 싶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싶어서 너무 감격이 되는 것이다. 이광수가 쓴 사랑과 비교가 안 됐다. 그때부터 나도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한번은 집회 때 목사님이 나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다. "오늘은 나 대신 최정원 학생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신 모양이었다. 끝나고 내려갔더니, 주먹을 치켜들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놈들이, 들었느냐!" 하는 것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셨다. 한번은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고 행복해하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셨던 모양이다. "뭘 그렇게 좋니?" "그럼요!" 성경을 읽어드렸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런 좋은 말씀도 있구나." 하셨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신 것이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책이 없나? 성경 안에 다 있다. 읽을수록 은혜가 된다. <이노크 아덴>이라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알프레드 테니슨이 쓴 시다. 내 방에 가보면 고향 해변 사진이 있는데, 그 고향과 흡사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쓴 시다. 이 책은 12번을 읽었다. 나머지 책들은 두 번을 못 읽겠더라. 그런데 성경은 읽을수록 은혜가 된다. 또 읽어도 또 은혜가 된다. 이번 주에는 잠언 2장 메시지와 녹취록을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근본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새벽기도를 다녀오는데, 길에 정신지체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일으켜 보니까 조금 장애가 있었다. "밥 먹었어?" 안 먹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왔다. 몸을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나를 위해 차려주신 밥을 나눠 먹었는데, 아버지가 밤에 나갔다가 오시면서 이 모습을 봤다. "자식, 저 동생들한테나 잘 하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시더라. 학교에서 2등을 해도 인정을 안 하시던데, 이 모습을 보니까 다 컸구나 하고 인정하시고 내 말을 들어주시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다. 군에 다녀온 다음에 이야기했다. "아버지도 형도 저도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돈을 각자 벌어서 각자 쓰는 것으로는 우리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늘 이대로입니다. 가정에 충무를 세워서 모든 돈을 모으고, 쓰는 것을 절약하고, 통장에 나머지 다 모으면 10년 안에 우리 집은 살 겁니다." 그랬더니, "좋아, 그리 하자!" 하시더라. 그러면서 "내가 하자고 했으니 네가 충무를 해라." 3개월 밖에 못 했다. 8만 원이 모였다. 신학을 하기 위해 떠나는데, "네가 모은 돈이니 내가 가지고 가져라." 아마 3년 만 충무를 했으면 우리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을텐데 3개월 만에

내가 떠나게 되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집을 떠났다. 지금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우리 교우 중에 우리 집을 가본 분도 있지 않나.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 부모 탓하지 마라. 조상 탓하지 마라. 어릴 때 나는 우리 마을에서 왔다. 윗물이 별로여도, 막아서 새롭게 하면 다 쓸 수 있다. 족보 탓하지 마라. 지금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옛 일을 생각할 필요 없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3)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지혜를 말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다. 계명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다. 6월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지혜와 명철을 입에서 내신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지혜를 깨닫게 되고 붙잡게 되고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 우리 램브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란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 깊이 생각할 부분은, 이 말씀을 받는 일에 갈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언 2:2에 뭐라고 하는가?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같이 그것을 찾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붙잡는 일에 마음을 쏟아라. 어느 정도 해야 하는가? 보화를 찾는 것처럼 갈급해야 한다. 만약 '내가 교회 안 어디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숨겨놨으니 찾는 사람 가져가라' 하면 여러분도 찾으려고 난리가 날 것이다. 그것 찾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라. 황금을 찾는 것처럼,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아라. 말씀을 찾기 위해 갈급해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을 굳게 잡고 악한 자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잘 안 되는가?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붙잡아 보라. 말씀을 읽어 보라. 성경 읽는다고 다 되느냐 하는데, 그러면 안 읽으면 되는가. 여러분, 순종하면 확신이 온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잠언 2장은, 지혜를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장이다. 어떤 은혜를 주는가?

(1) 잠언 2:7-8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임한다는 것이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지 않나.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초대 제헌국회를 개최할 때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시작한 나라다. 기독교 나라다. 이승만 박사가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준 것이다. 잘 지켜나가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는데도." 우리가 행실이 온전할 수 없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붙잡으면 온전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 칭의(稱義)는 의롭다는 게 아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가려주시고, '너는 의인이다' 해 주시는 것이다. 그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얻기를 바란다.

(2)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2:21에,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무슨 말인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을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땅을 차지하는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란다.

(3)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잠언 2:22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로마서 16:20에 말씀했다.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악한 자의 세력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간이 되기를 축복한다.

원수의 전략을 알고, 이기는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서서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다. "복한이 핵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더라. "형, 괜찮아. 우리 복음 가진 자가 있는 한 원수는 준동하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그래, 네 믿음대로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진리의 길, 생명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은 승리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명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그 방법을 숙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말씀이 쌓이게 하시고,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